안녕하십니까? 김원중입니다. 이번은 6강 자신의 역량을
점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자신의 역량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혹시 허세에 물들어 상대를 과소평가하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는 않는지요. 아직도 중국 하면 미개한
나라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인

교수들과 함께 남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남산에서 서울
야경을 보려고 했죠. 그런데 저는 좀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교수들은 거의 다 상하이에서
온 분들이었는데 상하이 야경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하게

느끼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중국의 서쪽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비주류 지역이라고 하는 귀주 지역만

하더라도요. 화장실 가보면 티끌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요. 서로 간에 칸막이가 다

돼 있어서 프라이버시마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걸
보면 중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볼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6강에서 지피지기의 문제.
즉,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 된다.

내 자신을 지나치게 아전인수 하듯 해석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앎의 과정을 통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손자의

생각입니다. 바로 손자병법에서는 지피지기 지천지지
즉, 적을 알고 나를 알고, 하늘을 알고 땅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의
중요성 즉, 아는 것의 중요성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한국 전쟁에서 마오쩌둥을 도와서 전쟁을 한 장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장수죠. 팽덕회 장군이라고 하고

펑더화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수가 있는데 그 장군이 전쟁을
하면서 가장 주력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상대편을 기만하는

전술이었습니다. 무슨 기만 전술이었냐면요. 미국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하고 전쟁을 하면서 미국 포로들을

잡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봤자 너희들에게 줄 식량도 없고 너희들을 데려가봤자

별 쓸모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너희들을 풀어줄 테니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나 해라라는 식으로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군들은 팽덕회의 그 말을 믿고 대비를
소홀히 했던 것이죠. 그 틈을 타서 팽덕회가 기습 전쟁을

해서 무려 미군 3천 명이 포로로 잡혔던 것이죠. 그것이 한국
전쟁에서 당한 미군의 가장 큰 피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생각할 때는 팽덕회 장군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습게 생각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것을 잘 간파하고

그것을 공략한 것이 팽덕회 장군의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즉, 적의 정황이나 적장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한번 생각해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피지기를 많이 쓰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요. 글을 쓸 때
지기지피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마오쩌둥도 항상 글을 쓸 때

지기지피 백전백승. 사실은 손자가 백전백승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마오쩌둥은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지기지피 즉,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번 싸워서
백번 이긴다고 마오쩌둥은 얘기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승리 즉, 적에게 승리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적의 상황을 내가 제대로 알면 나는

분명히 유리하고 적의 상황을 잘 모르면 나는 대단히
불리하다는 그런 얘기죠. 즉, 말하자면 상대편을 알고 나를

알면 상대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손자는 바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삼았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전쟁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선지, 선지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선지를

하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 선산, 먼저 계산하고 선행, 먼저
행동하고 선동, 먼저 기동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손자가 말하고자 하는 전쟁에서의 지피지기를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 적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바로 기선을 제압해서 우리, 아군의
손아귀에서 적이 놀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손자는 열 배가 되면 적을
포위하고, 다섯 배가 되면 공격하고, 두 배가 되면

분산시키고, 대적할 만하면 대적하고, 적보다 적으면
도망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서

적보다 아군의 숫자가 적으면 도망치라는 얘기예요. 섣부르게
공격에 나서다 보면 절대 승리할 수 없고 포로로 돼서 전쟁을

망칠 수 있다고 본 거죠. 바로 우리가 지피지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전쟁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삼국지의 적벽대전입니다.
이 적벽대전에서 위나라 조조가 결국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 그러냐면 200년도에 원소와의 전쟁 즉, 관도대전에서
조조가 승리를 했죠. 그래서 8년 동안 북방을 다 안정을

시키고 결국은 조조는 남방의 형주 땅을 공략할 목표로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조조는 별생각 없이, 물론 조조는

손자병법에 주석을 달 정도니까 조조의 병가로서의 안목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조조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오나라의

손권, 또 오나라 지역에 있는 형주 땅을 빼앗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문제가 하나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사이에 조조는 오나라랑 단둘이 전쟁을 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웬걸? 몇 가지 문제가 도사리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조조는 북방 출신이죠. 북방은
아시다시피 물이 없죠. 조조가 있었던 그쪽 땅은 물이

없으니까 오나라 땅은, 오나라 손권이 다스리고 있는 땅은
물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조조는 수군에 약하고

그거에 비해서 오나라 손권은 수군에 강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유비가

제갈량을 만난 시점이 바로 적벽대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만났습니다. 207년에 만났죠. 그래서 만났는데 제갈량이

유비한테 내세운 것이 뭐냐면 지금 별로 조조나 손권의
세력이 닿지 않는 익주 땅에 본거지를 두고 익주 땅을

본거지로 두면서 형주 땅을 장악하면 천하삼분지계가
완성된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거를 조조는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조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오나라랑
승부를 내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껴 들어간 것이 바로

촉나라죠. 누가? 제갈량이, 제갈량이 그 당시 주유를 만나서
설득한 것이 뭐냐면 즉, 북방의 조조가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촉나라랑 오나라랑 동맹을 맺어서
조조를 이기면 우리가 절대 앞으로도 조조한테 시달리지

않을 것 아니냐? 특히 조조의 군대는 수군에 약할 것이니
한번 전쟁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했고

그것에 주유와 노숙이 결국은 그 말을 듣고 동화가 돼서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돼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조는 결국은 수전에 약하다 보니까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바로 그 형주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바로 조조도 아니고 손권도 아닌 유비가 차지하게 되고
그 형주를 관우가 다스리게 됩니다. 결국은 적벽대전을

통해서 조조는 삼국지연의 즉, 소설에서 나오죠. 조조가 100만
대군을 잃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화공 전략에 의해서요.

그런데 물론 정사에는 100만 대군까지는 아니고 약 20만 명
정도를 잃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20만 명도 적은

숫자도 아니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가 적벽대전을
통해서 또 지피지기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또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일단 지나친 낙관주의도 문제고 비관주의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겸허한 자세로 냉철하게 현재 자신의 위치를 인지하는

것. 즉, 지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상대편, 또 직장에서
내가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상대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직장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나의 상황과 직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손자가 말하는 대로
지피지기하는 자세가 요구되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것의

근간에는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세상에는 고수가 많습니다. 예컨대,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매미가 이슬을 마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미 뒤에는 사마귀가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또 모르고 있습니다. 사마귀는 또 참새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또 모르고 있죠. 참새는 어린아이가

새총을 들고 자기를 또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또
모릅니다. 어린아이 앞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보다

2배나 깊은 물웅덩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결국은 나는
상대편을 노리고 있지만 또 상대편도 내가 모르는 노림수를

늘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이거나 감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냉철하게

나를 파악하고 적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